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편찬 경과와 의의

박정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1. 들어가기

2000년대 전후로 한국어 교육의 수요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류 열풍,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등의 요인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습 목적과 학습자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계의 내외적 환경 변화는 교육 자료, 기초 연구, 교원 양성 등 다방면의 연구와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의 연장선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한국어 학습용 사전’ 편찬의 요구는 높아져 왔다. 이러한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기초사전》과 이를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sup>1)</sup> 편찬을 기획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이 사전들을 기획할 무렵에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록 어휘, 편찬 언어와 형태 등의 면에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여건을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 이하 본고에서는 사전 명칭을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으로 줄여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에 개정한 한국어 학습용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편찬하게 된 경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각 사전의 편찬 방향과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사전의 편찬 의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 2.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 경과

1997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는 2,692명이었다. 그 후 약 10여 년이 지난 2009년, 즉 본 사전 편찬을 기획할 당시에는 응시자가 189,320명에 이르러 무려 7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이 기획될 때까지만 해도 급증하는 국내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어 교육 기초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세종사업의 하나로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반영하고 수요자에 기반을 둔 ‘쉽고 살아 있는 사전’을 편찬하는 추진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 기구로 사전편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단계별, 연차별 사업 계획을 검토·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2010년 1월에 비로소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이라는 사업명 아래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 편찬, 그리고 한국어 학습용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를 단계별, 연도별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1. 단계별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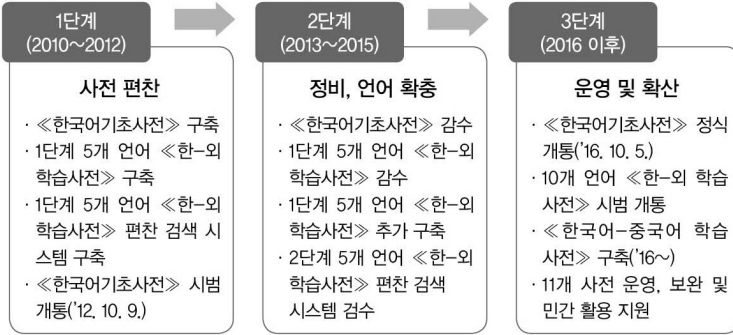
《한국어기초사전》의 목표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를 주 사용자로 설정하고,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일어 한국어 학습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이 사전은 학습 수요가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편찬할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기반이 되는 사전이기도 하다. 한편,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목표는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을 학습 수요와 언어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언어<sup>2)</sup>로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여 한국어로 쉽게 뜻풀이하고, 용례를 풍부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에서는 《한국어기초사전》의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되 사전 이용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여 번역하고 사전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을 시작으로 2016년 이후까지를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을 수립하였다. 추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언어 개수와 세부 추진 내용 등 계획 일부는 한국어 교육과 해당 언어 전문가 등의 자문,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다<sup>3)</sup>. 이러한 수정

- 
- 2)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언어는 학습 수요, 정책적 지원 필요, 언어 규모 및 한국어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단계 5개 언어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으나 지원이 부족한 언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 국내외 한국어-외국어 사전 편찬 현황 등을 선정 기준 자료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2010~2012년) 사업에서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를 편찬 언어로 선정하였다. 2단계(2013~2015년)에 접어들어서는 한국어 학습 효과와 함께 언어 규모를 고려하여 편찬 언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5개 언어는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이다.
- 3) 2009년 기획 시에는 2015년까지 10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3단계 10개 언어를 추가로 선정하여 편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국어 추가 번역보다는 학습 사전으로서의 사전 정보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한편, 중국어의 경우 민간에서의 개발 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1, 2단계 사업에서 번역 대상 언어로 선정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요구로 3단계 사업에 추가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된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단계별 추진 절차를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단계별 추진 절차



- \*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1단계('10~'12) 편찬 5개 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 \*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2단계('13~'15) 편찬 5개 언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 \*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3단계('16~) 편찬 1개 언어 추가: 중국어

**표 1**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1단계 (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등재 어휘 선정 및 집필 (표제어 기준 5만여 항목)</li> <li>· 한국어 학습 시 필요한 실용 용례 제시</li> <li>· 학습 정보 제시</li> <li>· 사진, 동영상 등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자료 구축('10~'12)</li> <li>· 시범 개통('12. 10. 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5개 언어의 '한-외 학습사전' 편찬</li> <li>· 1단계 5개 언어의 '한-외 학습사전'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li> </ul>
2단계 (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표기 감수</li> <li>· 사진, 동영상 등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자료 추가 구축('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5개 언어의 '한-외 학습사전' 감수</li> <li>· 2단계 5개 언어의 '한-외 학습사전' 편찬</li> <li>· 2단계 5개 언어의 '한-외 학습사전'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li> </ul>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내용 통합 정비(‘16)</li> <li>· 검색 시스템 정비 및 개선(‘16)</li> <li>· 정식 개통(‘16. 10. 5.) 및 운영</li> <li>· 민간 활용 지원</li> <li>· 사용자 의견 반영, 지속적 학습 자료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 결과 통합 정비(‘16)</li> <li>· 언어별 검색 시스템 정비 및 개선(‘16)</li> <li>· 시범 개통(‘16. 10. 5.) 및 운영</li> <li>· 민간 활용 지원</li> <li>· 사용자 의견 반영, 번역의 지속적 보완 및 구축</li> </ul>

## 2.2. 연도별 편찬 경과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단계별 추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기초사전》은 2010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표제어 5만 항목을 구축하였다<sup>4)</sup>. 이와 함께 사전 편찬을 위한 시스템과 검색 시스템, 사전 누리집을 개발하여 2012년 한글날에 시범 개통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한국어기초사전》 3천 항목의 표제어와 해당 뜻을 이를 1단계 5개 언어로 시범 번역하여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구축 모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범 구축 과정을 거쳐 2012년까지 1단계 5개 언어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을 편찬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한국어 교육, 사전, 정보화, 외국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기초사전》과 1단계 5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번역 결과 및 사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 평가를 약 20일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전의 편찬 내용과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한국어기초사전》의 표현·표기 감소와 1단계 5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대역 감수를 추진하

4)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는 사전에 올릴 표제어 5만 어휘를 선정하여 약 2만 항목을 편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만 3천 항목, 2012년에는 7천 항목을 편찬하였다.

였다. 이와 함께 2단계 5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대역 편찬을 진행하였으며, 언어별 편찬 시스템과 검색 시스템 그리고 언어별 사전 누리집을 구축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는 개통에 앞서 《한국어기초사전》과 10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을 최종 통합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어기초사전》은 시범 운영하면서 접수된 사용자 의견과 계열어 간 일관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뜻을 풀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나 뜻풀이가 추가되거나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을 검토하여 표제어나 뜻풀이로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어, 파생어, 원어 정보, 발음 정보 등을 정비하였으며 활용형 가표제어와 검색용 이형태 정보를 추가하여 사전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에는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통합 정비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기초사전》에서 표제어가 추가되고 뜻풀이가 수정, 추가된 항목을 목록화한 후 10개 언어별 번역에 반영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자체로도 품사별 번역의 적절성, 언어별·언어 간 계열어, 문법 용어, 문화 어휘 등의 번역 일관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문장 부호, 음차 표기, 성조나 대·소문자 표기 등이 언어별 지침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감수 과정을 거친 사전의 한국어 풀이 수준과 언어별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언어별 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 내용과 시스템 사용성을 점검하였다<sup>5)</sup>. 사용성

---

5) 한국어 초급 수준 1명과 중급 수준 1명 등 2명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각 사전의 사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자와 국어원 담당자가 이들의 과제 수행을 모니터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회씩 총 3회 실시되었다.

점검을 통하여 사전 내용과 누리집 번역의 적절성, 검색 결과 제시 범위와 정렬, 폰트, 한국어와 번역문 제시 순서, 사용자 의견 제시 방법 등의 면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6년 사전 개통에 앞서서는 언어별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누리집의 번역과 검색 결과, 사전 기능 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어원 담당자-시스템 개발자-언어별 선임 번역사-언어별 원어민 감수자가 함께 모여 사전 누리집의 모든 기능을 직접 사용한 후 보완 사항을 바로 번역과 시스템에 반영하는 언어별 사용성 정비 과정을 거쳤다<sup>6)</sup>.

지금까지 기술한 각 사전의 연도별 추진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연도별 추진 내용**  
(기준: 표제어 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어 기초 사전	편 찬	구 축 (20,000 항목)	구 축 (23,000 항목)	구 축 완 료 (7,000 항목)/ 시 범 개 통 (10. 9.)	뜻 풀이 감 수 (22,800 항목)	감 수 (27,200 항목)	뜻 풀이 외 항 목 감 수 (22,800 항목)	유 형 별 통 합 정 비/ 개 통 (10. 5.)
	시 스 템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 사전 누리집 구축		편찬·검색 시스템 보완 정비 사전 누리집 보완 정비				
한-외 학 습 사 전 1 단 계	편 찬	시 범 구 축 (언어별 3,000 항목)	구 축 (언어별 28,200 항목)	구 축 (언어별 18,800 항목)		감 수 (언어별 20,000 항목)	감 수 (언어별 30,000 항목)	유 형 별 통 합 정 비/ 시 범 개 통 (10. 5.)
	시 스 템	언어별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5종) 언어별 사전 누리집 구축(5종)		언어별 편찬·검색 시스템 보완 정비 언어별 사전 누리집 보완 정비				

6) 언어별 누리집 번역 및 사용성 정비는 10개 언어 웹과 모바일 버전 20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1일에 한 언어씩 총 10일에 걸쳐 24명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외 학습 사전 2단계	편찬				구축 (16,800 항목)	구축 (18,000 항목)	구축 (15,200 항목)	유형별 통합 정비/ 시범 개통 (10. 5.)
	시스템				언어별 언어별 사전 누리집 구축(5종)	언어별 언어별 사전 누리집 구축(5종)	언어별 언어별 사전 누리집 구축(5종)	
한-외 학습 사전 추가	편찬							중국어 구축 (21,200 항목)
	시스템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	

### 3.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 방향과 의의

지금까지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과정을 추진 단계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각 사전이 어떤 편찬 방향으로 구축되었는지를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이 방향에 따라 구축된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이 갖는 의의를 짚어 볼 것이다.

#### 3.1. 편찬 방향과 특징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목표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학습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한국어기초사전》이 한국어 단일어 사전 이라면,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편찬된 이중 언어화 사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로 편찬된 학습용 사전이라는 점과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구축할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토대가 되는 사전이라는 점을 목표로 하여 구축되었다(국립국어원, 2009:29). 이와 같은 목표 아래 구축된 《한국어기초사전》은 다음과 같은 편찬 방향과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한국어기초사전》의 주 사용자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로 이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사전으로 편찬한다. 이 편찬 방향에 따라 5만 항목의 표제어를 선정하고 이를 쉽게 뜻풀이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실제적인 예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기초사전》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알아야 할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법·표현(예: -게 하다, -는 체하다 등) 1,000여 항목을 표제어로 올렸다. 한편 2,886항목의 관용구와 속담을 표제어 아래 부표제어로 제시하였으며, 용언의 활용형도 가표제어로 검색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뜻풀이하고, 《한국어기초사전》에 있는 표제어로만 뜻풀이하고자 하였다. 말뭉치 검색 결과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구 용례 5개 이상, 문장 용례 2개, 대화 용례 1개를 기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표제어의 사용 맥락과 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어기초사전》을 토대로 언어권별 한국어-외국어 사전을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학습용 다언어 사전의 기반이 되는 사전으로 편찬한다. 이 편찬 방향은 뜻풀이에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 선택에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한국어기초사전》의 한국어 뜻풀이는 그 자체로도 의미 전달과 내용적 완결성이 담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더라도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필해야 하기 때문이다<sup>7)</sup>. 이와 같은 《한국어기초사전》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학습자에게 거부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한국어 뜻풀이

를 집필·감수하였다.<sup>8)</sup>

셋째, 한국어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다중 매체 자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용 사전으로 구축한다. 《한국어기초사전》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어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605개의 다중 매체 자료와 70,901개의 발음 자료<sup>9)</sup>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사전 내용과 검색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표제어 중 한국어의 각 수준(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어휘에는 수준별로 별표를 달리 붙여 제시하였으며, 주제·상황 범주에 따른 한국어 수준별 어휘를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언어, 접속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사전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전과 모바일 사전 형태로 개발한다. 《한국어기초사전》을 이용할 한국어 학습자들은 국내외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사용 환경의 편차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전 정보를 손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 위주의 웹 사전과 모바일 사전으로 개발하였다.

다섯째,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 창출과 한국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전으로 개발, 운영한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2.0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여 누구나 상업적 용도까지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본 사전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저작자를 필수로 표시해야 하며(저작자 표시), 자료를

---

7) 1단계에 《한국어기초사전》 집필을 담당한 연구진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진행하다 보니 풀이말의 어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강현화·원미진 201221)”로 서술하였다.

8) 《한국어기초사전》의 이러한 편찬 방향은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사용자 언어와 문화권에서 수용,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하여야 한다는 지침과도 연결된다.

9)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표제어 발음과 표제어의 활용 발음 2종류를 제공한다. 표제어의 발음 파일은 45,253개이고 표제어의 활용 발음 파일은 25,648개이다.

변경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는 그 저작물도 《한국어기초사전》과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한다(동일조건변경허락)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sup>10)</sup>.

다음으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표제어 뜻풀이, 부표제어(속담, 관용구)와 부표제어의 뜻풀이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편찬한다. 그 외 예문, 관련어, 문형,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세부 사전 내용은 《한국어기초사전》의 것을 공유함으로써 언어별 사전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학습 사전의 특징을 갖도록 한다.

둘째, 한국어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되 사전 이용자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여 번역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 시 한국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과 함께 도착어(target language)<sup>11)</sup>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매년 본격적인 번역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별 세부 번역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어와 도착어에 능통한 전문 번역사와 내용 감수자, 언어 감수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수 체계로 진행하였다.

셋째, 사용자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 사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 기능과 화면 등을 설계한다. 《한국어기초사전》과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의 학습자가 사용할 것이므로 이들의 인터넷 환경과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기능과 글자 위주의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조가 있는 언어(베트남어, 타이어), 대소문자 구분이 있는 언어(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 러시아어 등), 문장 부호와 사전 약물, 문장 정렬 방식(아랍어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식을 취함)

10) 이 저작권 정책은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두 종류의 사전 자료 가운데 일부 다중 매체 자료와 발음 자료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다.

11)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통역할 때 전자를 출발어(source language), 후자를 도착어(target language)라고 한다.

등을 번역과 사전 기능에 반영하였다.

이 외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앞에서 기술한 《한국어기초사전》의 학습 사전, 웹 사전이자 모바일 사전, 저작권 자유 이용과 같은 편찬 방향과 특징을 공유한다.

### 3.2. 편찬 의의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방향과 특징을 통해 각 사전의 의의를 (1) 사전의 유형과 특징 측면, (2) 사전 편찬 체계 측면, (3) 정책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구축된 사전의 유형, 특징 측면에서의 의의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으로 편찬되었다. 특히,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 뜻풀이까지 번역된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앞선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는 어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전을 제일 많이 이용하며(이은경, 2015; 이홍식, 2009), 이중 언어화 사전은 단언어 사전에 비해 어휘의 이해와 사용 관점에서 모든 능숙도의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다(배연경, 2013; 윤서향, 2011; 정영국, 2009).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2) 사전 편찬 체계 측면에서의 의의

사전 편찬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더구나 웹 사전이나 학습사전, 다언어 사전과 같은 유형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언어

교육, 번역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전 편찬의 어려움을 기능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을 구축하면서 국내외에서 이중 언어화 사전을 웹으로 서비스하는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례로 《한국어기초사전》의 ‘명사’, ‘조사’, ‘관형사’ 등 품사 관련 표제어의 대응어나 대응 표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아랍어의 문장 정렬 방식을 설계하는 것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수를 받았다. 이러한 편찬 과정을 통해 한국어-외국어 사전 편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찬 추진 체계(다중 감수 체계), 인력 운용 체계, 대역 지침 체계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 (3)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의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사전 내용은 ‘출처 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조건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뜻풀이와 대역 뜻풀이 등 사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 사전 자료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더욱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재생산, 보급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2016년 10월 5일에 개통한 《한국어기초사전》과 이를 10개 언어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편찬 경과를 기술하고, 이 사전들이 어떤 방향에서 편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사전의 특징과 의의를 간략하게나마 짚어 보았다.

2010년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2016년 개통하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감수와 정비, 전문가 자문, 사용자 평가를 거쳤다.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의견을 분석하고, 사전 이용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감수,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어 학습자 맞춤치가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언어별 학습자 오류 정보를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어휘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이자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로 재생산이 가능한 기초 자료이다. 모쪼록 본 사전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공부의 문턱을 낮춰 주고, 양질의 다양한 2차 자료로 재생산되는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현화·원미진(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제20호, 한국사전학회, 7~30.
- 국립국어원(200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 \_\_\_\_\_ (20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 설명회》, 국립국어원.
- \_\_\_\_\_ (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 설명회》, 국립국어원.
- 김철호(2009), 내가 만난 사전, 만나고 싶은 사전, 《새국어생활》 19권 4호, 국립국어원, 69~84.
- 배연경(2013), 사전 사용 연구의 현황과 의의- 영어교육에서의 사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1, 108~134.
-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개관, 《한국사전학》 제14호, 한국사전학회, 7~51.
- 윤서향(2011), 영영한사전 비교 분석, 《한국사전학》 제18호, 한국사전학회, 174~208.
- 이은경(2015),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국어국문학》 171, 145~178.
- 이홍식(2009), 한영사전 이용 실태 연구, 《언어과학연구》 51, 227~252.
- 정영국(2009ㄱ),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전망: 영어 학습자 사전의 경우에 비취 본 고찰, 《한국사전학》 제14호, 52~79.
- \_\_\_\_\_ (2009ㄴ), 학습용 이중언어 사전의 편찬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19권 4호, 국립국어원, 49~68.
- 조항록(2005), 한국어 교육 실시 현황, 《2007 국어연감》, 국립국어원.